

일반논문

한자어 부정 접두사의 결합 양상

현영희 | 경북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공통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 ‘무(無), 불(不), 미(未), 비(非)’에 의한 파생어들의 결합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는 어근과의 결합에서 형태적으로 배타적 분포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때 각 접두사와 결합하고 있는 어근들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몇몇 어근들은 둘 이상의 접두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파생어의 의미적 변별성에 대해 기술하는 것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접사(affix)’는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성해 내는 생산성(productivity)을 가지고 있는 요소다. 파생어의 생산성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기제로 ‘저지(blocking)’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지는 ‘다른 형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Aronoff 1976)’ 또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동의를 회피하기 위한 현상(Kiparsky 1982)’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형태·의미적으로 동의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형성 제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lag(2003: 66~68)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쟁하는 두 접사가 만들어 내는 파생어가 완전한 동의어가 아닌 경우가 있고, 저지될 것으로 예상된 단어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들도 대체로 형태 결합에서 배타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몇몇 예외적인 파생어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파생어들은 실제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예를 들어 ‘비합리, 불합리’와 같이 파생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거의 동일하더라도 실제 쓰임에 있어서 의미적인 차이와 다른 접사와의 결합 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의미적인 동의어를 저지하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어형성 제약이 단어 형성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칙이 아니라 경향성일 뿐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파생어들의 결합 양상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한자어 접두사의 지위에 관한 선행 연구

한자어 접두사는 고유어 접두사와 달리 단어처럼 한자 자체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사로 보아야 할지 어근 또는 관형어로 보아야 할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근 앞에 붙는 일음절 한자어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접사로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한자어 부정 접두사¹⁾에 의해 파생된

1) 어근 앞에서 접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음절 한자어의 경우 ‘접사’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 논의에서는 접사 범주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편의상

단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근 앞에 붙는 일음절 한자어를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하는 연구로는 이익섭(1969), 김규철(2005), 노명희(2005)를 들 수 있다. 이익섭(1969)은 단어를 핵심부분과 비핵심부분으로 구분하여 비핵심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접두사로 보고, 한자어 접두사로 ‘미-, 불/부(不)-, 최-, 양-’ 등을 제시하였다. 김규철(2005)은 한자어를 접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준 접두사(prefixoid)’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노명희(2005: 79~96)에서는 접두 한자가 갖는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접두 한자 중에서 접두사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접두사적 성격이 많은 접두 한자어와 관형사적 성격이 많은 접두 한자어로 나누고 그 정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부채론으로는 서병국(1975), 정민영(1994)을 들 수 있다. 서병국(1975: 76)에서는 의미가 보존되어 있는 한자어를 접두사로 취급하고 논의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이라고 보았고, 정민영(1994: 80~81)에서는 핵심 부분이나 비핵심 부분이나,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자립성의 유무, 분포상의 제약의 기준으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기도 하나, 구분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다른 한자 형태소 자체의 여러 특성들은 이러한 구분을 어렵게 하므로, 결국 한자어 단어 형성에 있어서 접두사의 설정은 무의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자어 접두사는 그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도 접사인지 어근인지 또는 관형사인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합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접두사로 보고 있고 동일한 의미군을 형성하는 ‘무(無), 불/부(不), 미(未), 비(非)’만을

‘한자어 접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 설정에 관한 부분은 3.1장에서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에서 접두사를 설정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한자어의 접두사 설정 문제는 논외로 하고 기존 논의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2.2 저지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

형태론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저지’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생성 이론적 접근, 생산성에 의한 접근, 의미적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성 이론적 접근으로는 김규철(2005), 채현식(2000), Aronoff(197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규철(2005)에서는 저지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로 파악했고, 채현식(2000)에서는 ‘-거리’와 ‘-대’와 같이 그 기능과 의미가 비슷한데도 저지의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거리’와 ‘-대’는 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이들 논의는 ‘저지’라는 어형성 제약 규칙에 기반하여 단어 형성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Aronoff(1976) 역시 저지를 다른 형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저지를 생산성에 의한 현상으로 접근한 논의로는 송철의(1992), 최형용(2003), 이광호(2007), Rainer(1988) 등이 있다. 송철의(1992)에서는 척도 명사 ‘X기’는 새로운 척도 명사 ‘X이’가 없을 때에만 나타나고 그 이외에는 ‘X기’가 저지되는데, 이를 ‘-이’와 ‘-기’의 생산력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형용(2003)에서는 저지의 전형적인 예로 보이는 ‘X이, X기’, ‘X이, X음’은 동의어 회피 원리와 경제성 원리로 설명하고, 두 접사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X롭-, 스럽-’, ‘X거리-, X대-’는 생산성의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저지의 예외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광호(2007) 역시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파생 접사의 상대적 생산성으로 저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논의라 할 수 있다. Rainer(1988)에서도 저지의 경향성을 저지하는 단어의 빈도에서 찾고 있어 생성 이론적 접근에서 저지의 예외로만 취급되었던 대상들에 대해 생산성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지를 의미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창섭(1984), 조현숙(1989) 등을 들 수 있다. 김창섭(1984)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롭-, -하-’는 서로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지만 그 기능이 형용사적인 한자어 접미사 ‘-적’은 저지 현상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전자는 서로 의미가 달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고 후자는 ‘-적’의 의미 특성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조현숙(1989)에서도 부정 접두어인 ‘무(無)-, 불/부(不)-, 마-, 비-’를 주 대상으로 하여 부정 접두어들이 배타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저지 현상에 의한 배타적 분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분 부정’의 기능으로서의 부정 접두사의 용법 및 기능상의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저지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저지 현상을 겪는 경우에는 동의어 회피, 경제성 원리를 그 이유로 들고 있고, 저지를 겪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성이나 접사나 어근의 의미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 모두 저지가 확고한 규칙이 아니라 경향성에 불과한 현상임을 암묵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며, 저지 현상이 단어의 의미나 생산성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어 형성 기제는 엄격한 원칙이라기보다는 경향성에 불과하며, 전형적으로 저지를 겪는 것과 저지를 겪지 않는 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선정 및 용어 정의

한자어 접두사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접사로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나뉜다. 이는 한자어 자체가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인데 접사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완전히 접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접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여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

아래 표는 기존 학자들이 접두 한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접두 한자에 대한 설정 현황을 비교·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 비교

| | 노명희 | 최현배 | 고영근·구본관 | 허웅 |
|------|---------|-----|---------|-----|
| 대(大) | 관형사) 어근 | 접두사 | · | 접두사 |
| 몰(沒) | 접두사) 어근 | 접두사 | · | 접두사 |
| 무(無) | 접두사) 어근 | 접두사 | 접두사 | 접두사 |
| 미(未) | 접두사) 어근 | 접두사 | 접두사 | 접두사 |
| 반(反) | 관형사) 어근 | 접두사 | · | 접두사 |
| 불(不) | 접두사) 어근 | 접두사 | 접두사 | 접두사 |
| 비(非) | 관형사) 어근 | 접두사 | 접두사 | 접두사 |
| 전(全) | 관형사 | 관형사 | · | 관형사 |

노명희(2005)에서는 접두 한자가 접두사적, 관형사적, 어근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성에 따라 분류를 하였고, 최현배(1937)는 접두 한자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파생어의 생산성과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접

사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고, 허웅(1995)은 최현배(1937)의 구분에 따르고 있다.

이들 중 ‘무(無)-, 미(未)-, 불(不)-’은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접두사로 설정하고 있으며, ‘비(非)-’의 경우 노명희(2005)에서만 관형사적 속성을 가진 한자로 보고 있어 접두 한자 중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 한자 ‘무, 미, 불/부, 비’는 대체로 접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부정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한 의미군으로 묶어서 어근과의 결합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이들 한자어 부정 접두사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두에서 접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음절 한자어를 ‘한자어 부정 접두사’라 부르고 이들 부정 접두사들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의 결합 양상과 분포,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21세기 세종계획 기초자료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형태이미주석 말뭉치²⁾ 1,703,561어절을 활용하였다. 형태의미주석 말뭉치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어근과의 결합을 따로따로 통계를 내어 분석할 수 있어 결합 어휘의 빈도수를 비교 분석할 때 동형이의어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논의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세종 말뭉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오류를 수정·통합한 후 재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불그레, 불교의, 불가리아인, 불어가며’ 등 부사, 일반/고유명사, 용언 등의 단어 첫 음절이 한자어 접두사 ‘불’과 형태가 같아 ‘불/xpn+그레/nng, 불/xpn+교의/nng, 불/xpn+가리/nng+아인/nng, 불/xpn+어가/nng+며/jc’로 태깅되어 실제로 접두사가 아닌 형태에 태깅된 예들

2) 이하에서는 ‘세종 말뭉치’로 함.

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못 분석된 자료는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말뭉치 자료에서 순수한 한자어 부정 접두사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 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를 수정하고 재가공한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파생어 목록 중에서 한자어 특성상 접사와 어근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모두 제외하였다. 한자어 부정 접두사의 경우 결합되는 어근의 음절수가 1음절이거나 또는 전체 어절 수가 4음절 이상인 파생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2음절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인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음절 이상의 파생어의 경우에는 2음절 파생어보다 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ㄱ. 무경험자, 불투명체, 부적격자

ㄴ. 비합리주의, 비포장도로

(1ㄱ)에서처럼 접두사와 접미사 중 어느 접사가 먼저 결합되었는지 그 선후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1ㄴ)처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인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인지 판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2음절 파생어와 4음절 이상의 파생어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파생어 목록을 바탕으로 각 접두사별로 결합하는 어근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 이상의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의 경우 의미와 용법을 예를 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때, 파생어의 의미와 활용 양상에 대한 검증은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예문과 표준국어대사전 웹 버전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파생어의 결합 분포와 특성

4.1 파생어의 결합 분포

일반적으로 ‘저지(blocking)’는 같은 의미를 지닌 기존 단어의 존재로 인해 새로운 파생어가 생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는 인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같은 의미의 어휘라면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려고 하는 언어의 경제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처럼 동의어 회피 원리에 의하여 제한된 파생을 보이는 접사들로 ‘-이, -기’, ‘-이, -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스럽, -롭’이나 ‘-거리, -대’와 같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접사의 경우 저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고 두 접사가 하나의 동일한 어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존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접사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하여 파생 과정에서 저지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지를 겪은 파생어들을 단순히 접사나 어근의 의미적인 동일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반대로 저지를 겪지 않는 예외적인 파생어들 역시 우연히 발생하거나 규칙을 어긴 예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 속성을 가진 접사들 사이에서도 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부정’이라는 동일한 의미 속성을 가진 한자어 부정 접두사 ‘불/부(不)-, 무(無)-, 미(未)-, 비(非)-’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근과의 결합 분포를 살펴보고 배타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파생어와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파생어들의 결합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결합한 어근 목록을 각 접사별로 정리하여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표 2>를 통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어근은 하나의 부정 접두 한자와 결합하는 배타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양상에 대하여 접사

표 2.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결합한 어근 목록

| | |
|-------|--|
| 불(不)- | 가결, 가능, 가분, 가해, 간섭, 개입, 경기, 경제, 공정, 공평, 구속, 규칙, 균등, 기소, 만족, 명예, 명확, 복종, 살생, 상용, 성실, 소급, 승인, 신임, 안전, 안정, 완전, 음주, 이익, 이행, 일치, 적격, 철저, 출마, 출석, 충분, 친절, 퇴전, 투도, 투명, 특정, 평균, 평등, 포화, 필요, 합격, 합리, 허가, 확실, 확정, 활성화, 효자 |
| 부(不)- | 가역, 도덕, 등속, 연속, 자유, 작위, 적응, 적합, 정의, 정확, 조리, 조화, 주의 |
| 무(無)- | 대책, 득점, 매개, 면허, 목적, 반동, 반주, 방비, 배당, 보수, 분별, 비판, 사고, 사상, 생물, 성격, 성음, 성의, 소속, 소식, 소용, 소유, 승부, 시험, 실점, 안타, 연고, 연탄, 원천, 월경, 의미, 의식, 의지, 의탁, 이상, 이자, 자격, 자본, 자식, 작위, 작성, 저항, 절제, 정건, 정물, 정부, 정형, 제한, 조건, 주택, 중력, 지각, 질서, 차별, 착륙, 책임, 척추, 투표, 표정, 한정, 허가, 혐의, 형물, 형식, 호흡 |
| 미(未)- | 개발, 개척, 경험, 등기, 망인, 발령, 발표, 배정, 분양, 분화, 상환, 설치, 성년, 성숙, 숙련, 신고, 완성, 정비, 조정, 조직, 지급, 착용, 취학, 합의, 해결, 확보, 확인, 확정 |
| 비(非)- | 공개, 공식, 공인, 과세, 구상, 금속, 농가, 능률, 대칭, 동기, 매품, 무장, 분리, 상근, 상식, 선행, 소설, 수기, 신자, 유기, 이성, 인간, 인정, 정규, 정상, 정형, 존재, 주류, 합리, 합병, 협조, 회원, 효율 |

나 어근의 의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만약 접사의 의미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의 동일한 어근이 여러 접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근의 의미에 기인한 결합 양상이라면 하나의 접사와 결합한 어근들끼리는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접사와 결합한 어근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을만한 특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부정 접두사들끼리 저지를 겪는 이유는 이들 접사들이 ‘부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지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해 왔던 것에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 속성에 의한 저지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더욱 설명력 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

한자어 부정 접두사는 대체로 배타적인 분포 양상을 보였지만 몇

표 3. 두 개의 부정 접두사와 결합한 어근

| | 불/부(不)- | 무(無)- | 미(未)- | 비(非)- |
|----|---------|-------|-------|-------|
| 작위 | 0 | 0 | | |
| 정형 | | 0 | | 0 |
| 합리 | 0 | | | 0 |
| 허가 | 0 | 0 | | |
| 확정 | 0 | | 0 | |

몇 단어의 경우 하나의 동일 어근이 두 개의 접사와 결합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에 의한 저지를 겪지 않는 단어들의 결합 분포를 보이면 <표 3>과 같다.

말뭉치를 통해 추출된 파생어 중에서 형태 결합에서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파생어는 모두 5개였다. 이들 어근들은 부정 접두사들 중에서도 ‘불/부(不)-’와의 이중 결합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어근이 두 개의 접사와 결합하는 현상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의미적인 측면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어근이 어떤 접사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지만 문법적인 범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지를 겪지 않는 예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파생어들의 의미 차이, 출현 빈도, 문법적인 범주의 변화 양상 등을 실제 용례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4.2 저지를 겪지 않는 파생어들의 특성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부정 접두사와 결합한 어근들 중 가장 많이 중복되는 부정 접두사는 ‘불/부(不)-’이다. Rainer(1988: 167~171)와 이광호(2007: 216~217)에서는 고빈도의 파생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다른 파생어의 생산을 저지하는 반면 저빈도의

표 4. 접두사 ‘불/부(不)-’에 의한 파생어 빈도 목록

| 순위 | 파생어 | 빈도 | 순위 | 파생어 | 빈도 | 순위 | 파생어 | 빈도 |
|----|-----|------|----|-----|----|----|-----|----|
| 1 | 불가능 | 1375 | 23 | 불명예 | 55 | 42 | 불가지 | 9 |
| 2 | 불투명 | 322 | 24 | 불기소 | 54 | 43 | 불가역 | 8 |
| 3 | 불필요 | 284 | 25 | 불친절 | 51 | 43 | 부등속 | 8 |
| 4 | 불안정 | 238 | 25 | 불출마 | 51 | 44 | 불철저 | 7 |
| 5 | 불확실 | 220 | 26 | 부정확 | 50 | 45 | 불안전 | 5 |
| 6 | 부조리 | 219 | 27 | 불연속 | 44 | 45 | 불가결 | 5 |
| 7 | 불균형 | 202 | 27 | 부조화 | 44 | 46 | 불출석 | 4 |
| 8 | 불평등 | 197 | 28 | 불경기 | 39 | 46 | 불개입 | 4 |
| 9 | 불이익 | 189 | 29 | 불특정 | 38 | 47 | 불포화 | 3 |
| 10 | 불공정 | 185 | 30 | 불합격 | 35 | 47 | 불퇴전 | 3 |
| 11 | 불구속 | 179 | 31 | 부자유 | 33 | 48 | 불살생 | 2 |
| 12 | 불완전 | 157 | 32 | 불만족 | 30 | 48 | 불가해 | 2 |
| 13 | 불합리 | 149 | 33 | 불이행 | 24 | 49 | 불활성 | 1 |
| 14 | 부도덕 | 139 | 34 | 부적응 | 23 | 49 | 불허가 | 1 |
| 15 | 불충분 | 78 | 35 | 불명확 | 22 | 49 | 불평균 | 1 |
| 16 | 불성실 | 74 | 36 | 불확정 | 19 | 49 | 불음주 | 1 |
| 17 | 불규칙 | 69 | 37 | 불복종 | 17 | 49 | 불승인 | 1 |
| 18 | 부적합 | 60 | 38 | 불효자 | 15 | 49 | 불소급 | 1 |
| 19 | 불공평 | 59 | 38 | 불간섭 | 15 | 49 | 불경제 | 1 |
| 20 | 부주의 | 58 | 39 | 불균등 | 12 | 49 | 부정의 | 1 |
| 21 | 불가분 | 57 | 40 | 부적격 | 11 | 49 | 부작위 | 1 |
| 22 | 불일치 | 56 | 41 | 불가결 | 10 | | | |

파생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파생어의 출현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 추출한 부정 접두사 ‘불/부(不)-’에 의한 파생어도 이들의 주장과 같은 출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부(不)-’ 이외의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고 있는 어근 ‘합리, 확정, 허가, 작위’의 파생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 논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대체로 저빈도 파생어인 경우에 다른 부정 접두사가 동일한 어근을 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합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어근에 비하여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불/부(不)-’ 파생어 전체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므로 순위에 비해 고빈도 어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생어의 생산성이 다른 파생어의 출현을 저지한다는 생산성에 의한 접근이 한자어 부정 접두 한자어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동일한 어근을 취하는 파생어들의 의미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 접두사 ‘불/부(不)-, 무(無)-, 미(未)-, 비(非)-’는 ‘부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접두사가 가진 전체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차이가 있다.

(2)ㄱ. **불/부-15(不)**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ㄴ. **무-11(無)**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ㄷ. **미-18(未)**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아직 아님’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ㄹ. **비-32(非)**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문 (2)는 표준국어대사전 웹 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들 접사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모두 어근을 ‘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들은 대체로 배타적인 결합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파생어들은 접사의 의미가 다르므로 서로 의미적 차이를 가진다. 다만 ‘불/부(不)-’와 ‘비(非)’의 경

우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두 접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의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접두사 ‘불/부(不)-, 비(非)-’와 결합하는 어근은 ‘합리’로 사전에서는 이 둘을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로 보고 있다.

(3) ㄱ. **불-합리(不合理)** 「명사」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함. ㄴ비합리(非合理)

ㄴ. **비-합리(非合理)** 「명사」

「1」=불합리.

「2」『철학』지성이나 오성(悟性) 또는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일. 논리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이나 지식 이전의 잡다한 현상, 감각, 체험 따위를 이른다. ㄴ비이성.

예문 (3ㄴ)에서 ‘비합리’의 첫 번째 의미를 보면 ‘불합리’와 같은 의미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의 쓰임을 보면 ‘비합리’가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ㄱ. 주택회사가 이미 사용했던 부분에 다시 하자보수 짐을 져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ㄴ. 교도행정의 모순과 **불합리**는 탈주사건이 날 때마다 시비에 오른다.

ㄷ. 이러한 **불합리**를 강요하는 사회 환경이 안타까울 뿐이다.

ㄹ. 사용료 책정이 **불합리**하다.

(5) ㄱ. 인간의 정신에는 합리와 **비합리**의 측면이 각각 작용한다.

ㄴ. 합리성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세계이다.

ㄷ. 효심만을 강요하고 신성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ㄹ. 전쟁은 전쟁자체의 **비합리성**을 갖는다.

예문 (4)와 (5)을 살펴보면 서로 의미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문 (4)에서 ‘불합리’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

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고, 예문 (5)의 ‘비합리’의 경우에는 사전의 두 번째 뜻풀이로 쓰여 정신적인 면이 이해 불가능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서로 그 쓰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합리’는 또 다른 파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장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서 활발하게 쓰이며,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비합리’의 경우에는 단독 형태로 사용되기보다는 접미사 ‘-적, -성’과 결합한 형태로 쓰이거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특히 서술어로 사용될 때 ‘불합리’는 ‘-하다’ 결합형이 월등히 높지만 ‘비합리’는 접미사 ‘-적’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형인 ‘-적+이다’ 앞에 놓여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따라서 저지를 겪지 않은 두 파생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형태·통사적인 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파생어들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면 ‘불/부(不)-’와 ‘비(非)-’처럼 접사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어의 의미에서도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6) ㄱ.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불행위·소극 행위.

ㄴ. 무·작위(無作爲)

「1」 일부러 꾸미거나 뜻을 더하지 아니함.

「2」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함.

먼저 예문 (6)의 두 파생어 ‘부작위, 무작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의 경우 첫 번째 의미보다는 대부분이 두 번째 의미로 쓰이고 있다.

(7) ㄱ. 팀제 도입 후에도 팀원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팀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조사.

ㄴ. 대학 연감(1994년)의 교수 인명록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ㄷ. 모집단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잘 선정되어야 한다.

위 예문 (7)에서 ‘무작위’는 어근 ‘작위’를 부정해 주는 일차적인 의미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어휘들과 자주 공기하여 쓰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다의어인 ‘무작위’는 결합 어근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본적인 무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작위’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의미보다 어휘의 사용 과정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된 이차적 의미로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의 의미 요소가 파생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근 ‘정형’과 한자어 부정 접두사 ‘무(無)-, 비(非)-’의 결합형인 ‘무정형, 비정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자.

(8) ㄱ. **무정형(無定型)** 「명사」

일정한 틀이 없음.

ㄴ. **비정형(非定型)** 「명사」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무정형’과 ‘비정형’의 뜻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적이다. 그러나 ‘무정형’은 어떤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고, ‘비정형’은 어떤 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져 서로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가진다.

(9) ㄱ. 무정형의 열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불거져 나왔다.

ㄴ. 소설은 시나 희곡과는 달리 형식적 특징이 부족하고 대부분 무정형에 가깝다.

ㄷ. 우리 쪽에서 접수하기 어려운 대항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정형한 연합을 활용하라.

(10) ㄱ. 비정형 근로자는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ㄴ. 툭툭 빠른 붓놀림으로 비정형의 자연을 색채로 분할시킨 그 고흐를 닮고 싶은 것이다.

ㄷ. 업무가 비교적 비정형화된 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결합형을 두 파생어의 범주 변화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무정형’의 경우 비파생어인 ‘정형’은 접사 ‘-하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파생어 ‘무정형’은 ‘-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형’의 경우 ‘비정형하다’가 사전뿐만 아니라 말뭉치 자료의 용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예문 (10ㄷ)의 ‘비정형화되다’처럼 접미사 ‘-화 + -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어근 ‘허가’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 ‘불/부(不)-, 무(無)-’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11) ㄱ. 불-허가(不許可) 「명사」

허가하지 아니함.

ㄴ. 무-허가(無許可) 「명사」

허가를 받지 아니함.

‘불/부(不)-’와 ‘무(無)-’ 모두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 한자이지만 동일한 어근과 결합했을 경우 두 파생어의 뜻은 차이를 가지는데, ‘불허가’는 국가나 어떤 기관처럼 허가를 하는 주체에 초점이 놓여 있고 ‘무허가’는 그 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초점이 놓여 있다.

(12) ㄱ. 낙찰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다.

ㄴ.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폐기하게 되어있다.

(13) ㄱ. 무허가 판자촌 신세를 전전하다.

ㄴ. 무허가 소개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ㄷ. 경찰서는 24일 무허가 영업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했다.

위 예처럼 ‘불허가’는 허가를 해주는 주체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불허가’를 ‘무허가’가로 대치하면 의미적으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무허가’는 ‘무허가 판자촌, 무허가 소개소’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파생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를 보이는 예문이 대다수이다. 마찬가지로 ‘무허가’대신 ‘불허가’로 대치해보면 의미적으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불허가’와 ‘무허가’도 어근의 범주 변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불허가’의 경우 비파생어 ‘허가’도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사용되고, 파생어 ‘불허가’도 동사 파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허가’의 경우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지 못하며 예문 (13)에서처럼 대부분 다른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하는 관형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불허가’는 어떤 주체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행위성’이 들어 있는 반면, ‘무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다’ 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확정’은 접두 한자 ‘불/부(不)-’와 ‘미(未)-’와 결합하여 ‘불확정, 미확정’ 두 파생어를 형성한다.

(14) ㄱ. **불-확정(不確定)** 「명사」

일이나 계획 따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

ㄴ. **미-확정(未確定)** 「명사」

아직 확정되지 않음.

‘불확정’과 ‘미확정’도 부정 접두사의 의미에 의하여 파생어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문장에서의 쓰임에서도 두 파생어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 ㄱ. 앞날이 불확정하다.

ㄴ. 예산의 불확정으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16) ㄱ. 아직 미확정의 상태로 개방되어 있는 자유의 영역, 미래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ㄴ. 그 건물을 증축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예문 (15)에서처럼 ‘불확정’은 확정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예문 (16)에서 ‘미확정’은 확정의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확장 전 상황을 뜻한다. 이들 의미 차이로 인하여 ‘불확정’의 자리에 ‘미확정’을 넣어보면 비문이 되고, ‘미확정’의 자리에 ‘불확정’을 넣어도 의미가 명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7) ㄱ. *앞날이 미확정하다.

ㄴ. ??아직 불확정의 상태로 개방되어 있는 자유의 영역, 미래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 ‘불확정’은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반면, ‘미확정’은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뿐만 아니라 ‘-되다’ ‘이다’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술어 형태가 쓰이고 있다.

(18) ㄱ. 앞날이 불확정하다.

ㄴ. 불확정한 사실.

(19) ㄱ. 그 건물을 증축할지는 아직 미확정이다.

ㄴ.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 사전 유출여부 등도 감찰 대상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는 대체로 형태적 결합에서는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만 동일한 어근이 두 개의 접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나타나며, 이때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접

두사 자체에 의한 의미적 차이를 가지는 파생어들의 경우에도 의미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이나 다른 접사와의 결합 형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고는 이제까지 한자어 접두사, 특히 부정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무(無)-, 불/부(不)-, 미(未)-, 비(非)-’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의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 논의에서도 한자어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는 어근들은 서로 배타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 파생어들은 저지를 겪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자어 부정 접두사는 접두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지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무관한 접사들이라면 오히려 동일한 어근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부정’이라는 의미적 속성에 의해 저지를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몇몇 파생어들에 대해서는 파생어의 빈도가 저빈도일수록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다른 파생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저지에 의해 배타적 분포를 보이는 파생어와 저지를 겪지 않는 예외적인 파생어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한자어 부정 접두사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저지는 확고한 어형성 제약이라기보다는 접사의 의미적 속성, 파생어의 생산성, 실제 사용 양상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 김규철(2005), 『단어형성과 도상성에 대한 연구』, 박이정.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형태론』, 태학사.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국어연구회.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서병국(1975),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시정곤(2006),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 『형태론』, 8권 2호, 257~276.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호, 국어연구회.
- 이광호(2007),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호(2008), 「파생어와 그 의미의 도출: 2개 이상의 갈래뜻을 가진 파생어를 중심으로」, 『형태론』, 10권 1호, 39~61.
- 전상범(2006), 『형태론 개론』, 한국문화사.
- 정민영(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현숙(1989), 「부정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성격과 용법」, 『관악어문연구』, 14, 231~25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Kiparsky, P.(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3-9.
- Plag, I.(2003),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iner, F.(1988), Towards a theory of blocking: Italian and German quality nouns, In Booji, Greet and van Marle, Jaap (eds), *Yearbook of Morphology* 1988. Dordrecht:Foris. 155~185.

[702-701] 대구 북구 산격3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dew840713@hanmail.net

ABSTRACT

The Aspect of Derivation of Chinese Negative Prefix

Hyun, younghe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observe morphologic, semantic, syntactic distribution of derived forms of Chinese negative prefix ‘mu(無), bul/bu(不), mi(未), and bi(非)’. This research are explained relative productivity and tendencies of blocking in a quantitative. And we are described meaning and usage of derived forms in a context.

The results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a property of meaning, that is, 'negation' and blocking. These results also clarified the inte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derived forms and blocking. Some of the words doesn't combine exclusively.

Therefore this study have worked not only morphologic aspect but semantic, syntactic distribution of this some of the word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locking is a competition between prefixes which have similar meaning. In some cases we don't have typical blocking. This is explained that the prefixes with the lowest productivity don't have blocking and these derived forms have a difference of meaning and usage of in the context.

Key words: Chinese negative prefix, prefixed word, blocking

핵심어: 한자어 부정 접두사, 파생어, 저지